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한국원자력산업회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서울 셰라톤 위커텔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의 원자력 국제 회의인 이번 연차대회는 한국을 비롯,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PNC, WANO 등 12개국/2개 국제 기구에서 540여 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 협력과 원자력 르네상스(Global Collaboration and the Nuclear Renaissance)'라는 대회 주제 아래 최근 부흥기를 맞은 원자력계의 현황을 짚고 향후 전망 등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연차대회의 개최사, 환영사, 축사와 함께 개최 세션의 특별 강연, 패널 세션의 기조 강연을 발췌하여 신는다.(편집자)

원자력계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이 원 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 대회장



존경하는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먼 길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도널드 힌즈 미국 원자력학회(ANS) 회장님, 슈레이얀스 제인 인도 원자력공사 사장님, 이치로 타케쿠로 일본 동경전력주식회사 부사장님, 양 창리 중국 핵공업집단공사(CNNC) 부사장님, 클래어런스 하디 평양원자력협의회(PNC) 회장님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원자력계 전문가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국제 유가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자력은 깨끗한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의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 범세계적인 협력으로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귀중한 기

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원자력계 전문가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이번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아무쪼록 세계 원자력계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원자력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번 연차대회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준비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대회에 함께 하여 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